

## ◆ 政府 施策 ◆

# 49개 工產品 할당관세 적용 요청

## - 통산부, 재경원에 20개 신규, 17품목 연장 -

통상산업부는 전자식제동장치(ABS) 등 20개 신규품목을 포함, 모두 49개 공산품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또 전기저항기 등 17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PC주기판에 대한 조정관세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산부는 할당관세 요청대상 49개품목 중 원유·경유·벙커C유 등 21개 품목은 할당관세 인하와 적용기간 연장을, 염료·면사 등 8개 품목은 할당관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적용기간 연장만을 각각 요청했다. 또 납도금 강판 등 20개 품목은 신규로 할당 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규 요청품목 중 ABS의 경우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앞으로 대형버스와 트럭에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자동차업계의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8%의 기본세율을 4%의 할당관세로 적용할 방침이다. 손목시계 무브먼트 역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완제품인 손목시계에 8%의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산시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8%의 기본세율을 4.8%의 할당관세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통산부는 또 원모나 주물용 선철은 2%의 관세율을 무세로, 전극과 화공원료인 VCM은 기본세율 8%에서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품목중에서도 원면 3개 품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의 할당관세율을 무세로, 철강산업관련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핫코일은 6%에서 1%로, 핫코일은 6%에서 2%로 각각 낮추고 알루미늄위트는 6%에서 4%로 인해해 줄 방침이다.

한편 텅스텐산염·면사·재생필라멘트사·전기강판 등 8개 원자재는 현행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간만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정관세의 경우 설탕·플라스틱필름·모직물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을 유지하면서 적용기간 연장만을 요청했고 매트류·산류, 산류의 부분품, 전기저항기 등 4개 품목은 내년도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조정관세 인하를 추진중이다.

PC주기판의 경우 관련제품인 PC의 원가상승 요인이 돼 PC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 한국 CALS 추진협의회 구성키로 - 通産部, CALS 全産業에 확산 誘導 -

정부는 민간차원의 CALS(Commerce At the Light Speed)체계 도입확산을 위해 한국 CALS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해나가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CALS가 설계에서 생산·물류·재고에 이르기까지 상품유통 전과정에서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에 입각해 리드타임을 줄이고 불량률 감소시키는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CALS를 전산업에 확산·활용하기 위한 민간조직으로 한국 CALS추진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와 산업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인 세일정보통신이 공동으로 협의회 구성의 산파역을 맡게 하고 생산성본부 내에 추진반을 구성, 발기인협의 및 창립총리를 준비하고 향후 협의회를 민간 중심의 독립된 법인으로 발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자상거래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협의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연구조합도 설립토록 함으로써 CALS 추진에 따른 기술개발과제를 도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 CALS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최근 통산부가 발표한 CALS 시범사업자 선정계획에 따라 업종별 CALS 응용모델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하에 표준제정, 국제협력사업 등 전산업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

## ◆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근간인 전력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쇄신 확정과제도 수용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제출대상을 발전설비의 경우 1만킬로와트에서 10만킬로와트로 상향조정함.
- 나. 대용량 전기수용가가 사전에 전기사용통지를 하여야하는 기간을 1년씩 연장(1~2년→2~3년).
- 다. 특수장소 및 건물의 범위에 유흥업소, 노래방 등을 새로이 추가하고, 점검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강화.
- 라. 자기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대상에서 75KW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제외시킴.
- 마. 지중전선로중 토목공사가 완료된 때와 송·변전설비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
- 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이 제외된 중소기업자의 100KW미만 저압 자가용 전기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
- 사. 정기검사대상에 수력(양수)발전소를 추가함.
- 아. 전기수용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안전점검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 10만볼트미만 1,500KW미만 설비에 대하여는 실무경력이 없는자도 사전교육을 받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며, 동일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는 사전교육을 실시후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자격 부여.
- 차.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 및 가중치 단계를 현재의 4단계에서 12단계로 조정하고, 가중치도 합리적으로 조정.

##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상산업부장관(참조 : 수화력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수화력발전과(전화 : 02-500-27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00개 資本財 표준규격 開發 - 工振廳, 民·官 공동企劃團 설치...100억원 투입 -

정부는 96년부터 2천년까지 총 100억원의 표준화자금을 투입, 600개의 자본재 핵심부품 및 소재에 대한 표준 규격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공업진흥청은 국내 자본재산업의 對日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民·官 공동의 '자본재표준화기획단'을 설치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재표준화 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되는 자본 규격은 그동안 관련업체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웠던 품목, 연간 對日 수입규모가 3천만달러 이상인 품목 및 최근 3년 이내에 국산개발이 완료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표준화대상 품목의 성격에 따라 개발방법, 연차별 추진방법 등을 차별화해 표준화 추진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기술이 안정되고 수급상 계열관계가 있는 부품·소재는 타기업군간 혹은 경쟁업체간 규격의 공동사용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꾀하기로 했다.

수출주도품목 또는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은 ISO·IEC·EN규격등과 일치화시켜 수출시 기술적인 무역장벽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품목과도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수입중에 있거나 기술성이 높은 첨단 소재·부품은 대부분 국제 혹은·국내규격이 없는 상태이므로 기술개발사업과 병행해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신규투자의 선행적 규격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진청은 표준화 관련 국가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표준화자금 100억원을 정부와 민간이 8대 20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금은 산업기술기반 조성자금 등에서 충당키로 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표준규격들에 대해서는 KS 규격품목 중 정부조달품목이거나 사용자보호 및 안전관련품목들은 정부 우선구매제도와 연계하거나 규격사용을 의무화하고 단체표준은 대기업과 생산자단체를 통해 표준품이 우선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이번 자본재표준화계획이 완료될 경우 자본재규격수가 작년말 755개에서 2천년에는 1355개로 확대돼 오는 2001년 20억달러의 수출증대 및 35억달러의 수입대체로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부품공용화로 규격별 평균 시장규모가 3~4배로 증가해 자동생산체제의 기반이 조성되고 국제 규격과의 일치화 및 선행적 표준화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이 쉬워지는 한편 국산개발 유도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ISO 9000 시리즈 規格 재편 - 2000년까지, 4개 규격과 테크니컬리포트로 -

품질경영인증의 주요규격인 ISO 9001, ISO 9002, ISO 9003의 3개 규격을 ISO 9001로 통합시키는 등 25개 ISO 9000시리즈 규격이 오는 2천년까지 4개 규격과 Technical Report로 재편된다.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南阿共 더반에서 개최된 ISO(국제표준화기구) 산하 ISO/TC 176(품질경영 및 품질보증) 표준화위원회 회의 결과, 이같이 ISO 9000시리즈 규격을 전면 재편성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22개 ISO 9000시리즈 규격은 앞으로 ISO 8402(개념과 용어 정의) ISO 9001(품질보증규격) ISO 9004(품질경영규격) ISO 10011(품질경영체제 심사를 위한 지침) 등 4개 규격과 Technical Report(규격선택과 사용에 관한 지침 및 품질원칙과 경영활동에의 적용지침)로 재편된다.

ISO/TC 176 표준화위원회에서 이처럼 ISO 9000 시리즈 규격을 전면 재편키로 한 것은 현행 규격이 단기간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격간 조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용자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규격수가 많아 일반 중소기업에서의 적용이 곤란함은 물론 다른분야 경영체제규격(환경경영)과 조화에 어려움이 있고 불필요한 규격이 많아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ISO 9000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ISO 9000규격의 적용과 해설지침'을 확정하고 내년중 핸드북으로 발간, 각국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어 중소기업의 ISO 9000규격 이해를 돕고 인증획득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95년 하반기 국산신기술 인정기술 선정

## - 과기처, 69개 기술 선정 -

일명 KT 마크제도에 의한 '95년 하반기분 국산신기술로 49개 기업 69개 기술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하고 국산신기술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수여식에서 국산신기술인정서를 수여받은 기술은 연초부터 7월까지 민간기업으로부터 신청된 261개 기술에 대해 기술성, 경제성, 제품특성, 품질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3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국산신기술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기술이다.

이번에 선정된 69개 기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계분야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화학·생물분야 18건, 전기전자분야 16건, 정보통신분야 7건, 금속·비금속 4건 순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0개 기술, 중소기업이 19개 기술이 선정되었다. 개별기업체로서는 (주)LG화학, 삼성전자(주), 삼성중공업(주), 현대중공업(주)이 각각 4개 기술씩 선정되었으며 LG전자(주), 대우전자(주)는 3개 기술씩 선정되었다.

〈분야별, 기업규모별 분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화학·생물	금속·비금속	계
대기업	13	2	18	14	3	50
중소기업	3	5	6	4	1	19
계	16	7	24	18	4	69

본 제도가 '93년 5월 제정된 이후 국산신기술인정을 획득한 기술은 이번의 69개 기술을 포함하여 총 361개 기술에 이르며 이중 대기업이 240건, 중소기업은 121건이다.

국산신기술인정제도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국산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초기 시장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3년부터 과학기술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인정서를 발급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소정의 협의 및 계약과정을 거쳐 적용제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처에서 인정하는 국산신기술제품 공고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종합기술금융,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통보되어 기술개발자금과 보증지원상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설연구소의 병역특례연구기관 추천시에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동 제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간 2회에 걸쳐 심사선정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6년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순까지 신청·추천을 받아 '96년 1월부터 심사를 통해 4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 '95년 하반기 국산 신기술 인정기술(전기관련 분야)

#### ○전기·전자분야

- 이화전기공업(주) : 고역률 개별순시치 제어형 전력변환기술(2년)
- 현대중공업(주) : 선박용 분산제어 시스템(DCS)
- 현대중공업(주) : DSP를 이용한 190KVA급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 기술(1.5년)

#### ○기계분야

- 삼성항공산업(주) : 고속, 고정도 리니어스 스텝 모터 및 제어장치(2년)
- (주)포스콘 : 연속공정 자동화를 위한 Multi-Function Controller(3년)
- (주)포스콘 : 제철 플랜트 압연기 구동용 PC 전동기 속도제어장치(3년)

#### ○화학·생물분야

- LG전선(주) : 자율제어형 고분자 히팅케이블 제조기술(2년)